

상상력 · 용기로 지속가능도시 만들기 '앞장'

전 주시는 그동안 전주발전을 이끌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용기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혁신정책들을 가장 앞장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전주에서 처음 시작된 다양한 정책들이 전국으로 확산됐고, 공간혁신을 통해 '누군가의 공간이었던 장소들도 '모두'의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전주시민들과 미래세대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전주 한옥마을 설경

▲정책혁신,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으로
먼저 전주시는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관광거점도시, 도시 활동의 핵심인 주거와 교통 분야에서 수소에너지 활용을 선도하고 실증하는 수소사업도시, 아프고 몸이 불편한 전주지역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요양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도시로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의 관광·경제·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관광·수소경제·통합돌봄 선도도시인 전주에서 시작돼 대한민국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셈이다.

특히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제기반형' 부문에 선정됐다. 사업대상지는 종합경기장과 전북대 인근을 포함한 덕진권역으로, 시는 2000년대 이후 신도시개발과 법원·경찰청 등 공공시설 이전, 종합경기장 이전 결정 등으로 인구감소와 삼림채취 등 도시 쇠퇴가 지속된 이곳에 국비 250억원 등 총 6323억원을 투입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경제거점을 만들게 된다.

이를 통해 종합경기장과 전북대 주변은 지역 문화자원과 메타버스(metaverse) 등이 융합된 첨단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신경계거점으로 육성되며,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총 268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 8289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또 '사람'의 가치를 지키고 약자 중심의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주형 복지정책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다. 아침밥을 굶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매일 아침 도시락을 배달하는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은 전주시 대표 복지정책을 넘어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복지정책으로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또 취약계층 아동에게 희망 도시를 지원하는 '지혜의 반찬' 사업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으며, 제도권 밖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설립된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랑'도 점차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전주시는 집값 상승으로 힘겨운 무주택시민들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말 출범한 부동산거래조사단을 통해 아파트 부기 의심사례를 집중 조사하는 등 아파트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서 시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힘겨운 서민들을 위해 민간임대아파트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토록 한 법률 개정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심사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한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 심사제도도 전국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이밖에 시는 코로나19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착한 임대운동 △재난기본소득 지급 △하고 없는 도시 상상선언 등 시대정신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들을 꾸준히 내놓으며 대한민국을 선도해왔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0%이상 의무 채용 범제화를 이끌고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된 미취업 청년과 전업주부 등을 포함하는 청년건강검진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등 정책혁신에 앞장섰다.

▲공간혁신, 누군가의 공간을 모두의 공간으로

전주시는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정책혁신과 더불어 을 한해 도시공간을 변화시키는 공간혁신에도 집중했다.

가장 먼저 삼매대집결지였던 선미촌은 점진적 문화재생산업체를 통해 인원과 문화예술이 숨쉬는 서노송예술촌으로 탈바꿈했다.

서노송예술촌의 옛 삼매대입소들도 △성평등전주 △새활용센터 다시봄 △미술사박물관인 △송대유스극장 △예술가해방단 '물결서사' △



▶ 김승수 시장의 포부



전주다움으로 더 좋은 미래 열 것

"2022년은 변화의 파도가 몰아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전주시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상상력과 도전하는 용기, 혼자가 아닌 연대의 힘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힘들었지만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온 힘을 다했다"면서 "덕분에 역대 최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인 덕진권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고 새해를 열어가는데 큰 힘이 될 2023 동아시아 문화도시에도 선정됐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괄목할 만한 전주의 변화와 성과로는 도서관의 변화와 혁신을 손꼽았다. 그는 "숲속시립도서관 여행지도서관, 글 쓰는 도서관에 이어 새해에는 연화정 검이불루 도

서관, 서학예술마을 도서관, 제2의 여행지도서관이 문을 열고 금암도서관, 인후도서관, 송천도서관은 품격있는 책놀이터로 재개관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시장은 "공공의 공간을 최상으로 만들면 시민 누구나 최상의 공간을 누릴 수 있으며, 그것이 공공의 힘이고 문화의 힘일 것"이라며 "평등하게 누리는 문화의 힘, 그것이 바로 공공기관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의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시장은 "사람과 생태, 그리고 문화는 전주라는 도시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전주의 정체성인 전주다움을 나타내는 상징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혼자가 아닌 끈끈한 연대의 힘으로 전주사람이라는 자부심과 전주에 산다는 것의 뿌듯함을 느끼는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 뉴딜 '경제기반형' 선정 사람의 가치 지키는 복지정책 선도 아파트 분양가 심사 전국 확산 도시공간 변화 '공간혁신' 집중 탄소중립 선언 · 에너지디자인 실천

예술인들의 창작을 돕는 '놀라운 예술터' 등으로 바뀌었다.

삭막하고 딱딱하게 느껴졌던 전주시청사도 로비 책기둥도서관과 장애인일자리 카페인 '꿈앤커피', 노송광장 생태놀이터 등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단정됐다. 이러한 공간혁신을 통해 시는 과거 '누군가의 공간이었던' 삼매대 집결지와 시청 등을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모두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나아가 시는 시민들이 책을 통해 삶을 바꾸고 미래를 준비하는 책의 도시답게 과거 응용이 책만 읽고 공부하던 도서관도 어린이 등 시민들이 책과 함께 놀면서 자유롭게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혁신적인 문화공간으로 변신시켰다.

특히 저점도서관인 시립도서관의 경우 전주 시립도서관 '꽃심'이 전북지역 시립도서관 중 최초로 학습실 없는 도서관으로 문을 연 것을 시작으로 방문객 모두가 눈치를 보지 않고 책과 함께 웃으며 뛰어놀 수 있는 책놀이터로 변화하고 있다.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에 이어 평화도서관, 삼천도서관, 금암·인후·송천도서관에 책놀이터가 생겼고, 내년에는 서신·쪽구름·효자도서관 등 3곳에 책놀이터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동시에 전주지역 곳곳에는 자연 속에서 시를 즐기고 창작할 수 있는 평화동 '학산숲속시립도서관', 책을 쓰고 만들 수 있는 완산도서관 '자작자와 책 공작소', 여행지전문도서관인 전주역 앞 '찾미중립여행지도서관', 그림책전문도서관인 팔복예술공방 '이팝나무그림책도서관', 시청 로비 책기둥도서관,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도서관' 등이 책 도서관들이 생겨났다.

매주 토요일에는 이들 특화도서관을 차례로 둘러보는 전국 유일의 도서관 여행상품인 '우리는 도서관으로 여행한다' 프로그램도 운영



전라강영 전경



2050 탄소중립 선언식



평화총선소 착공



관광거점도시 홍보영상

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도서관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인터넷·대형서점에 밀려 경쟁력을 잃고 고사위기에 처한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한 전주책사랑포인트 '책공작'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도시혁신, 더 지속가능한 도시로
이처럼 전주시는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생각지 못했던 정책들을 용기와 도전정신을 토대로 가장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사람·생태·문화의 3대 가치를 중심으로

도시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시는 혁신적인 문화공간으로 거듭난 도서관의 변화를 이끌고 공공 대안학교인 야호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교육과 공공이 공존하는 우리 사회에서 빈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판단에서다. 공공의 공간을 비싼 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사설공간을 뛰어넘는 최고의 공간으로 만들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생태분야의 경우 시는 시민들과 함께 만든 '전주 생태도시 종합계획'과 '천만그루 정원도시 종합계획'의 2대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동시에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사실상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갈 것을 선언하고, 에너지저장용량과 전력자립률을 각각 30%와 40%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에너지디자인 3040'도 실천해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슬픈 동물원 중 하나로 손꼽혔던 전주동물원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생태동물원으로 꾸준히 변신하고 있

며, 멸종위기종 보호 및 천연기념물 보존관 건립 추진 등 생물다양성이 살아있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의 변화를 꿈꾸고 있다.

시는 도시의 정체성이 살아 숨 쉬는 역사문화공간을 복원하고, 세계적인 공연상품이 될 '조선잡' 공연도 새롭게 선보이는 등 문화 분야의 성과도 일궈냈다.

특히 복원 재창조된 전라강영에서는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펼쳐지고 있으며, 전주한옥마을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대한민국 관광 10선에 5회 연속 선정되는 등 국가대표 여행지라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또 대한민국의 소리와 전통 예술놀이의 맥을 잇기 위한 전주 대시습춤도 올해 개관했으며,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전주가집놀이전수관도 문을 열었다. 여기에 시는 세계인의 영화축제이자 영화 표현의 자유가 살아 숨 쉬는 전주국제영화제를 해마다 개최하고, 전주비빔축제와 전주독서대전을 비롯한 3대 축제와 2대 문화주간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은 올해 전주가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2023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으로 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중국·일본의 문화도시들과 함께 활발한 문화예술 교류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어서 글로벌 관광도시 전주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시는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전주역사 전면개선 △한국문화원형콘텐츠·체험전시관 건립 △K-Fil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구축 △전북지역 재활병원 건립사업 등 5대 국가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서 개관한 첨단벤처단지 혁신창업허브와 신산업융합 지식산업센터, 종재적 테카노 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와 향후 들어서게 될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와 산학융합플라자를 포함한 미래 신산업 5대거점도 만들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가 그리는 도시는 사람과 생태와 문화의 가치를 구현한 도시,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이 최상의 공간이 되는 도시"라며 "2022년 새해에도 전주사람이라는 것이 자부심이 되는 도시, 전주에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뿌듯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삼 기자